

<수필>

司書有感

朴虎信

(상경도서관)

司書職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일일테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그리 많이 읽지 않는 편이다.

무슨 統計나 資料를 빌리지 않더라도 이런 현상은 능히 생활주변에서 抽出해 낼 수 있다.

歐美쪽을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로니에 숲 그늘에서, 버스 안이나 지하철에서, 공원이나 시장에서, 책읽기에 열중하고 있는 그쪽 사람들을 부러워 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들과 우리 사이에 가로 놓인 현격한 차이에 대한 가장 알기 쉬운 表象이 아니겠는가.

해마다 겪는 독서주간이나 그 수 없이 많은 캠페인과 부딪칠 때마다 나의 직업과 그것을 묘하게 對應시켜 볼때가 있다

어느 누구든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그래도 여지껏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새 나는 이 직업에 대한 自己名分을 가지게 된 것일까?>하고 우수운 자기위안에 빠지곤 하지만, 어쨌든 오늘도 나는 도서관의 일각을 차지한 채 이렇게 건재를 보이고 있으니 다행이라고나 할 밖에.

司書職!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책이나 대출하고 회수나 하는

사람들 쯤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서직은 얼마나 넓은 스코우프를 지녀야 하는가!

도서의 분류, 평목과 같은 정리는 물론, 특수도서의 소개, 독서의 기획, 올바른 독서를 돋기 위한 패턴의 제시 등, 실로 많은 디테일에 시간을 할애해야 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지적했지만, 일반인이 아닌 소위 엘리트라고 자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해서 多樣性이 결여되어 있는듯 하다. 전공과목은 물론이지만 그 외의 인접학문에 관한 도서를 涉獵하려는 노력이 활발치 못한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더우기 놀라운 것은 그들이 古典을 등한시 한다는데 있다. 완미한 고전보다는 차라리 時事的인 것에 편승한다. 물론 이런 현상은 매스미디어가 주는 영향력과 스피드化하는 오늘의 생활에서 오는 시간의 소모에 대한 기피증에서 연유되는 것이지만, 서운한 일임에 틀림없다.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자기 안목에 따라 良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 위주의 출판업자들에 의해서 독서의 行方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대체 사서들은 자기자신을 어떻게 定立해 가야만 하는지!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어느 누가 <현대의 일반적인 추세인걸 어찌하랴>라고 말한다면 그야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령, 다음과 같은 처방은 어떠할까?

良書를 바르게 選定하고 나서 그 위에 훌륭한 지질이나, 정교한 인쇄, 믿음직한 제본과 눈을 魅了할 수 있는 디자인 거기에다 저렴한 정가를 매긴다면.

그러나 이런 꿈(?) 같은 생각이 현실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일테니 마음 속으로나 부심하고, 상상의 유희로나 치부하는 것이 맘 편하게 아니겠는가.

박봉에 시달리는 가족을 뒤에 남기고 출근길에 오르는 러쉬아워의 만원 버스 속에서 어찌다 가져보는 생각의 片鱗이지만, 창밖을 바라보면 철근과 계산과 콩크리트가 지배하는 세계 뿐이고 도서관을 들어서면 마치, 그 그늘에 숨어 최후의 보루를 사수하듯이, 이런 꿈을 견장처럼 어깨에 달고, 사시들은 오늘도 그 수 많은 책의 숲 속을 헤매고 있는게 아닌가!

사서와 독서는 어찌됐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므로 평소에 느낀 생각을 질서 없이 쏟아 놓았지만…….

그러한 이런 현실들이 하나의 柑憂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규칙성에 神을 찬미하고 싶은 마음이다. 뿐이 앤 안개비가 내리고 있는 화폭은 사상 가장 훌륭한 걸작이라고 외쳐본다. 투명한 캠퍼스에 회색과 갈색과 약간의 노랑색으로 문질러 놓은 풍경화를 바라보느라면 어느 작품에서도 기여 해 주지 못하는 감정에 시선은 한정에 머물고 있나보다. 젖은 창공에 물끼를 적셔 본다……. 봄비가 힘찬 생물의 솟구침의 전주곡이라 한다면, 가을과 겨울의 틈바구니에서 내리는 비는 마지막 잎새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독을 안겨준다. 마치 이 계절이 대상 없는 그리움에 서러워 하듯이 이유없는 슬픔에 젖어든다. 슬픔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이라 하듯이 「사랑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이 가을은 외롭지 않으리라……」라는 싯귀를 반박이라도 해주고 싶으리 만큼 무언가. 이 계절에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라는 불안감에 또 하루의 근무를 마치고, 내일에 기대하고 산다면 어찌 나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

× × ×

Campus 시절의 옛집앞 은행잎은 잊지 못할 학창시절의 추억이다. 몇백년이나 묵었다는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노오랗게 깔린 은행잎의 풍치는 아마 세계적 일거라고 자랑하고 싶어 짐은 어찌 할수 없을게다. 그 잎이 좋아 책 갈피에 끼어 놓고 하든 그땐 自身이 가장 성숙한 여인이라고 자부 했었는데 몇년이 흐른 지금 생각하니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뜰에 몇 겹으로 낙엽이 쌓일 때면 예쁜 잎을 찾으려고 마음 모았다. 먼 곳에서 보면 모두 잘 생긴 잎이 하나씩 보면 제가끔 흠이 있어 실망도 하고 위안

계절의 小考

이 규 인

(중앙도서관)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는 언제든지 비가 뿌리고 있었다. 어느 시절에서 부터인가 그것을 느끼고 있었고 또 자연의

도 하든 때가 생각난다. 인간도 그와같은 사실에 부합 되리라는 역설(?)을 설명한다. 군중 속에 인간은 위대하고 강하게 보였을 테고 주위의 개체들은 변민을 하고 고독해 했으니 관찰을 했어도 대단한 착오였을 거라고 위안해 보자. 흰 칼라를 갖 벗어난 시절에의 가을에 소녀의 부푼 꿈과 이어지든 대화의 주인공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둑판 무늬로 걸맞추어진 인도를 걸어가며, 어쩜 난 은행잎 campus의 생활과는 깊은 인연이 있는 아이라는 조그마한 행복감에 미소 지으며 나의 발길을 옮겨 보는 것이다.

× × ×

빈번히 가끔 이 찻집에 오곤한다 결코 전전하고 생산적인 분위기가 될순 없어도 낭만과 짊음이깃든 장소이다. 음악과 소음으로 떠들썩한 이곳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길 수 있고 평범한 철학이나 유치한 인생관을 터득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겸은 대지(大地)에 눈망울만이 빛을 發하고 한가닥의 회색선이 천정을 向하여 굽이치고 있다. 가곡 「보리밭」이 흐르고 있다. 원 그놈의 「보리밭은 아직도 타작을 않았느냐」 어느 남학생의 넉두리를 들으며 지금의 「보리밭」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군 하고 오랫만에 웃으운 웃음을 띠어본다. 황금빛의 보리밭이 좋겠죠. 24시간을 줄곧 호흡을 느껴가며 삶을 영위해 가는 숨막히도록 무서운 자기 의식에 빠질때면 自我를 잊기 위하여 많은 일에 골몰을 해 본다. 現代의 짊은이들은 곧잘 이 일을 잘 찾아 자기의 정력을 소모하고 있지만 자칫, 짊은이는 자기 상실의 수단에 눈을

잘못 돌렸군. 조금 세월이 흐른후 前者와 後者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겠지. 이렇게 자기 의식에서 헤어나려든 짊은이들은 또 이 세상에서 「나」를 찾을 수 없노라고 「나」를 찾고자 하는 많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세상사(世上事) 넌센스 이야기.....

차라리 마지막 잎새가 있었더라면 계절에 아쉬움은 덜 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땅에는 마지막 잎새가 없더이다. 어마, 지금도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펄떡 펄떡...

空港片想

金玉子

(行政大學院圖書室)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공항이라고 하면 외국적이고 이방지 다운 낯선 생각을 하고 자기들 한테는 別無相關하다는 의식이 인식을 하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인것 같다.

그것은 분명코 우리와 무관하지도 않고 앞으로 꽉 인연이 많게 될 전망좋은 문명의 利地인데도 우리들 서민들에게는 모든것이 미흡한 자기들의 위치를 너무도 잘 안 나머지인지 체념상태에서 그저 동경적인 곳으로만 생각하는 이가 허다한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내 빼쓰표, 기차의 그것과 공간적인 위치의 차이외엔 무엇이 그렇게 크게 다를수가 있으랴?

난 이따금씩 공항에 잘 기회가 있어서
몇 차례 김포공항에 가보았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택시의 시원스런
통쾌 보다도 나는 내 뒤에 뻗히는 목적
지까지 가야만 되돌아 올수 있다는 고속
도로의 이미지에 더 흥미를 느끼며 공항
에 다다른다. 港內 각종 대기차들의 행
렬을 지나면 매표실을 거쳐 대합실(송영
장)에 이른다. 대합실에는 역시 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웅성거리고
있다. 코가 여위고 뾰족한 사람, 밀대기
의 갈색 눈동자, 괴상하게 웃을 걸친사
람, 멋진 트렁크를 들고 코수염을 기른
사람, 초미니 스커트를 입은 낯선 뚱뚱
보 할머니…… 그야말로 제각기 천태만
상의 자기 생긴대로를 그들은 보여준다.
그들은 번 이룩을 하게되면 수만리의 장
도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순간에도 나는
그들 한테서 平凡과 여유를 볼수 있는것
에서 무엇인가 저으기 느껴지는 것이 꼭
있다.

그래도 용기종기 모여서 영광과 아쉬
움을 나누는 조선인의 후예들 !

나는 그들의 정을 꽉 높이 평가하고
또 그러한 정에 인색하고 싶지가 않다.
비록 애인은 아니더라도 내게 전송을 나
온 사람이라면 비록 村老라 할지라도 꼬
옥 껴안고 놓아주기 싫은 심정이다.

이제 영광된 축원과 아쉬움의 절차가
끝나고 에어 포터(air porter)의 부산한
움직임이 끝나면 원피쓰 비행복에 빵모
자를 쓴 飛機의 조종사가 나온다.

그 모자는 우리나라 시골 우체부 아저
씨의 퇴색한 관모와 제복과는 꽉 대조적
인 것 같다. 기어코 요란한 금속성 폭음
이 귓속에 우렁이면 체념의 아쉬움은 너

무도 절실하다. 그것은 바이열린의 가냘
픈 음률보다도 더 찌리하게 우리의 심금
을 울려주는 것 같다. 그래서 거대한 機
體가 창공에 묻히면 야체기는 야릇한 홍
분과 호기심, 묘한 불만과 초라한 자신의
의 몰골을 입 꼬옥 다물고 긴 한숨으로
덮어둘 수 밖에 없다.

思念의 꼬리는 기어코 지난날 우리 한
국의 자취를 더듬게 한다. 한마디로 창
공을 누비는 인류문명의 지역적인 편차
가 순간이나마 이처럼 나에게 절실히 자
신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뉘우침으로 現
身됨은 그리 얄팍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리라.

무릇 국가발전의 근본적 요소가 그나
라 국민의 心性에 바탕을 둘진대 비록
갖가지 자원의 부족과 지리적, 外勢的
等의 허다한 원인이 물론 크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왕 어쩔 수 없는 양명적 조건
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주어진 처지에서
나마 최선의 방책을 찾았어야 되었을 것
이다. 난 내 이름대로 우리나라 위정자
들의 治政태도나, 실업가들의 기업 경영
수단, 또는 부모나 선배, 선생님의 근본
적인 교육목적이나 교수태도, 여사한 사
회풍조를 조성하는 諸요인들… 이런것들
을 類推해 보건대 西歐와는 너무도 質的
인 차이가 있음을 感知할수 있다. 물론
내가 무조건 무엇이나 好外的인 입장이
아닌것은 꼭 말해두고 싶다. 역시 중요
한 것은 무엇이거나, 누구한테든 좋은것
이라 생각되거든, 가치가 있는 일이라
판단되거든, 받아 들일수 있는 자세와
용기를 갖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난, 부모나 선생님, 그리고 선배의 지도
나 친구의 충고, 또 서적을 통한 교육…

이런 것들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이런 자세와 용기를 길러주는데 있다고 생각 한다.

그래서 나는 平素 나 보다 학교를 늦게 졸업했다거나, 나이가 어리다거나, 여자라서 또 외국사람이라고 해서, 친구나 선배 또 선생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단에서 있다고 해서 다 선생이 아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지식만의 전달자를 선생님이라고 하기에는 선생님이라는 말은 너무도 고귀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도덕이나 윤리관, 생활관, 가치나 諸事理의 판단기준이 변천한다는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며, 무슨 일에고 相對的인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또 物心어느면에고 공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자기의 실재를 냉엄하게 관찰, 평가하고 어느 경우에 적응할 수 있는 아량과 포부 自信과 용기를 길러야 되겠다. 이처럼 우리들 개개인의 건전한思考의 태도는 黃金이나 권력등의 유혹을 이길수 있으며 분명코 자기는 물론 국가의 富國強兵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런대 역시 우리들의 고민은 그러한 황금의 유혹을 저버리기에는 너무도 가난하다는 것이다.

친구한테 금전적 도움을 받는다거나 어느 나라로부터 무상원조를 받으면 그 친구를 대할때면 항상 미안감을 갖게될 것이며, 그 나라에게는 항상 주체성을 잃어서까지 잘 보여야 될것이며 그 이상의 값진 요구에도 응해줄 것을 강요 받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거기에 대한 물질적인 상환은 못해 주지만 반드시 우리

는 그 이상의 마음의 보상이라도 치러야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차가운 世情이냐마는 결코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며 또 이런 것들을 情의 有無로만 알아서는 큰 착오일 것이다.

파벌이나 이권, 체면이 인정에 비판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非情이란 말인가? 하지만 우리 인간사회는 너무도 많은 모순과 복잡하고 묘한 얹힘으로構造되어 있다. 꼼짝 할수가 없다. 같이 병들어 버리지 않기에는 너무도 우리 生은 악착스럽다. 그래도 우리들은 그런대로 德을 쌓아야 되겠다. 우리들이 덕을 쌓으면 비록 當代에는 報恩 받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後代에는 영광된 補償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그 자신, 그 가정, 그 사회는 침체와 퇴보와 시달림에 방황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체면이나 인정, 파벌에 끌려, 권세와 황금에 어두어 어느일을 웃지 못하게 처리한다면 반드시 그 체면이나 인정, 그 파벌, 그 권세 황금에 의해 자멸하고 말것이다.

또한 우리의 열심한 공부는 그만큼 명확한 지식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정성드린 건축은 그만큼 견고한 집이 될 것이다. 높은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낮은 사람 대우를 받아야 하며, 낮은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의 높은 사람 대우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능력과 실적의 정확한 판단과 대책의 강력한 실천은 분명코 그 기업의 장래를 보장시켜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라난 풍토는 어찌했으며 우리들의 선배, 부모들은 우리들

에게 어떤 교육을, 어떤 삶의 방향제시를 주었으며 아직 병들지 아니한 자에게 이 사회는 어떻게 보일까? 더욱이 우리의 모든 정치, 권력, 사회구조의 근저는 반드시 경제적인 밀바탕에서 이루어 졌으니 만큼 현대 젊은이들의 고민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마찰의 틈바구니에서 몸부림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항에 나오게 되면 우리들은 괜한 한숨으로 트랩에 오르는 잘사는 外人們을 초점없이 바라보고 동경만 할것이 아니라 분연히 자신을 반성하고 비판해서 자기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깨닫고 각자마다 대상이 되는 목표에의 도달을 위해서 꾸준히 꾸준히 근면과 성실을 다 하여야 겠다고 다짐한다.

이렇게 나는 한숨으로 덮어 두었던 갖가지 불만과 욕심을 하나씩 들추어 읊미해 보면서 서서히 공항을 등진다.

代用 휴지

유명규

(중앙도서관 사서과)

7원짜리 우표를 사기 위해 10원짜리를 내밀었다. 賣票商主人이 거슬러 줄잔돈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냥 두라고 했다. 그러니까結局은 7원짜리를 10원에 산 셈이 되고 말았다. 그러고도 별로 개운찮은 느낌이나 그 거스름에 대한 생각은 깊지 않았다.

이렇듯 요즘의 1원짜리는 확실히 화

폐의 概念을喪失한 것 같다.

어린애도 1원짜리를 주면 내동이 쳐버리며, 10원짜리를 주어야 겨우 울음을 그칠 정도이니 말이다.

그러나 몇년 전만 해도 요새의 경우와는 달랐다.

5.16直後 화폐 교환이 되고 그 후 얼마까지는 1원짜리도 제법 價值觀念이 있었고 돈이란 제 뜻을 다하였었다.

그런 때의 어느 날이었다.

길을 가다 화장실을 찾아야만 했다. 집을 나설 때부터 속에선 무엇이 꿈틀거리는 듯 했어도 괜찮겠지 하고 나선것이 기어코 탈을 내고 만 것이다. 참으면서 걸어 봤으나 하는 수 없었다. 코 끝에는 땀이 맷힐 정도였다. 그러다 발견한 곳이 公衆 변소였다. 몹씨 반가왔다. 즐비한 문을 차례대로 노오크했으나 對應하는 소리는 실로폰을 치는 것처럼 높아만 갔다. 이를 다물고 참으며 기다리다 내방이 하나 차지 되었다.

복작거리던 nuisance를 밖으로 내쫓고나니 그땐 살만했다. 속도 후련해지고 그런데 한 가지 탈이 있었다. 나에겐 휴지가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뒤져봐도 종이라곤 없었다. 밖에선 여신 문을 두들겼다. 간간이 혀차는 소리도 들려오곤 했다.

어쩔 수가 없어 안절부절하는데 마침 주머니에 1원짜리 두장이 있는 걸 발견해 냈다. 단호히 결심했다. 이것으로 휴지 代用을 할 밖에.

그리곤 내려다 보니 그 代用 휴지는 다른 휴지와 같이 同席하고 있는게 아닌가 조금도 달름이 없었다. 누르스름한 화장

(?)을 하고 있는 걸 하며.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무늬가 좀 다를 뿐이었다.

그리고 보니 그놈이 꽉 가련해 보였다. 平素 못사람에게 애착의 대상이 되었고 사랑을 받아온 그가 一時에 그꼴이 되고 말다니.

이렇듯 그날은 그 代用 휴지에 대하여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 그놈은 분명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物物交換에서 便利란 利點을 타고 탄생된 所產이다.

그런데 이놈의 媒介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웃고, 울고, 노여워하고, 괴로워하고, 시기하고, 미치고 하는가.

이놈의 誘惑에 끌려 쌓아 올린 功績이 찰나에 무너지고 인간의 탈을 쓴 禽獸가 되고, 寓像처럼 崇仰을 받기도 하고, 허수아비가 되기도 하며, 카메레온이 되기도 한다.

그뿐이랴! 진짜가 가짜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며, 반드시 될 것이 안되고, 안될 것이 되기도 하며, 살아야 할 것이 죽기도 하고, 죽어야 할 것이 살기도 한다.

이놈은 萬能이기도 하고 非萬能이기도 하다. 뿌리면 될 일인데 안 뿌리면 안되니 말이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네 이놈은 價值概念은 둔감을 하고 그 單位만 자꾸 하늘로 치솟는다.

그러나 아무리 이놈이 氣勢騰騰하다고 해도 한 가지 안 될 것은 꼭 있다.

이를테면 人間다운 것에 대한 人間을 媒介하는 일 같은 것.

아려야 살 수도 없고 팔려야 팔 수도 없는 데는 行勢를 못할게 아닌가.

그놈으로 買收를 했다. 그놈으로 因하여 變節이 됐다는 등은 人間을 買收한것 人間을 變節시킨 것이 아니라, 人間이란 이름을 가진 表皮와 각질(角質)로 감싸인 기름덩이를 變造시킨 것이기 때문이리라.

느 낌

安 英 子

(文理大 圖書館)

윤회적인 조락의 계절도 훌러가고 벌써 12월의 겨울문턱에 접어 들고있다. 생각하면 도서관 직원이나 공무원, 모든 직업인들이 한결같은 나날로 一年을 지내는 것이 제도적인 테두리나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인간의 철칙 인지도 모른다. 生物的인 人類의 歷史속에 맥맥히 이어가는 인간의 業績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과거의 결합과 生成과 未來의 결실을 더 참신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데 目的과 원대한 희망이 있는 것이라.

모든 分野의 실적이 집약된 서적을 다루는 도서관이 한낱 후진국의 위치에 처하여 있는 文理圖書館이지만 全國에서 수재와 명실이 결부된 교수들의 드나드는 데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一感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文理圖書館이 上央圖書館에 근접하여 있어 다른 단과대학 도서관에 비하여 뒤

늦게 발족하여 모든것이 빈약하지만 대학도서관은 대학생을 위주로한 봉사 일진대 수서부터 정리, 열람봉사에 있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있어 바람직하고 만족할만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의 어느것도 금년보다는 내년에 잘 할수있는 여건은 찾아 볼 수 없는데 고민은 있다.

도서관 운영이 예산과 조직에서 발전하여 궁극에는 열람봉사에 목적을 두는 테 있다면 문리도서관의 현실을 보면, 수서업무는 도서관업무의 기초이며 장서구성의 근본인 것이다.

열람의 대상이 교수나 대학생 일진대 교수만을 위한 장서구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도서관의 장서구성은 효율적인 장서구성이 될 수 없으며 정리나 열람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에서 서평쪽지나 요구도서철을 항상 준비하였다가 예산이 편성되어 수시로 서적을 구입 할 수 있을 때, 도서관 운영은 기업의 경영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정리업무를 보면 전문직의 일 분야라 할 수 있으며 사서가 마땅히 하여야 할 천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리도서관과 같이 다량의 언어로된 도서를 分類하여 card로 작성하여 배열, 이용자들에게 활용되기 까지에는 복본조사나 외래어표기 및 card 배열에 끈질긴 노력과 보조자료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열람봉사는 가장 최후의 과정인 동시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씨비스로서 명한 태도로서 신속하게 열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이나 교수님들이 요구해올 때 원래 없는 도서도 있지만 장서관리의 철저하지 못함으로 소재불명의 도서나, 연체도서로 반납을 게을리하는 독자들로 인한 고통은 크다 할 것이다. 원활한 도서의 활용이 이루어질때, 그 도서의 가치는 백 배의 실효가 이루어 진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망실, 분실, 연체도서를 보충 할 수 있는 제재방법은 교수님들과 여러 열람자들의 협조가 요구되기도 한다.

유능한 사서를 통한 수서나 정리, 열람봉사가 이루어지고 교수님이나 학생의 협조와 예산의 풍부로서 시설 <온방장치>이 좋아졌을 때 문리도서관은 참다운 봉사나 명랑한 도서관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근대화와 함께 물질적인 면에서 앞서는 도서관의 풍성한 기쁨이 비명에 울려저지고, 충족한 도서의 구입량이 늘 때, 국가의 발전은 기약될 수 있을 것이다.

두서없는 말로서 편집자의 노고와 해가 바뀌는 감회에서 불평이 아닌 개선의 밀결음으로 될까하여 몇마디 붙쳐 보았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것들

조 문 형

(中央圖書館書 사서과)

백일 지난 어린아기 웃는 모습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정원 한편 구석에 서있는 菊花가 찬

서리를 모르고 제철을 만난듯 꽃이 피어 있는 晚秋의 陽光이 비칠때, 가을은 대체로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가을날 구름한점 없는 바다같은 푸른 날씨에 그리운 이와 疾走하는 急行列車에 몸을 신고, 창밖을 내다보며 滿野의 五穀이 盛秋의 太陽아래 무르익어가는 廣野를 바라볼때, 옛 宮城을 찾아가 그 당시의 찬란한 文化를 回想하여 볼때, 佛國寺의 白雲橋, 青雲橋를 지나 法堂 앞에 섰을때, 몇해고 몇해고 지난 후에 문득 유학을 간 아들로 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그곳에 썩었으대 “나를 길러주신 고국에 계신 어머님이여, 저의 소행이 어머님께 얼마나 많은 不眠의 밤을 가져오게 했는가…… 대체 저의 소행이란 무엇이었던가! 혹은 하나의 追懷, 이제는 벌써 그 많은 罪狀을 기억속에 찾을수가 없음니다. 이제 머지않아 ○○학위를 받고 故國으로 가겠습니다!”

動物園에 간한 원숭이의 行動이 우리를 기쁘게한다. 철책 가를 그는 언제 보아도 왔다 갔다한다. 그의 능란한 솜씨, 그의 겨우뚱한 머리, 그의 活氣찬 움직임, 그의 앞발의 재주, 그의 미친듯한 循環, 이것이 우리를 말할수 없이 기쁘게 한다. 워드워어즈의 詩章

故舊를 만났을 때, 학창시대의 동무집을 심방하였을 때, 그리하여 그가 과거의 쓰라린 역경을 헤쳐 만인이 우러러 볼만한 한 사람의 高官大爵이요 혹은 돈이 많은 工場主의 몸으로서 우리와 잔을 나누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을때, 쥐를 보고 달려가는 고양이의 행동, 백합화의 香氣,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

을 준다.

풀밭에 속잎나고 가지에 싹이 트고 꽃피고 새우는 봄날의 天地는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해주랴! 냇가에서 흘러오는 아이들의 피리소리, 그것은 꿈같이 아름다운 봄날의 곡조, 모래사장에서 덩굴며 헤엄치는 꼬마들의 재롱, 달리는 열차 속에서 창밖을 바라볼때, 외딴마을 초가삼간 큰 애기가 손을 흔들어 줄때,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것뿐이라! 九折羊腸의 深山계곡을 달리며 오가는 버스 운전사끼리의 무사고를 알리는 손짓, 三伏에 케이블카를 타고 八角亭에 올라가 夜景을 바라다 볼때, “독으”가 헤엄치며 냇물을 건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예쁜 女子의 얼굴이 창가에서 미소를 지어줄 때, 찬란하고도 殷盛한 祝祭 무도회에서 어여쁜 그女와 손을 잡고 링을 할때, 聖賢의 名言을 읽을 때, 부드러운 아침 공기가 방안으로 스며들 때, 첫길인 어느 촌 마을에서의 다정한 하룻밤…

그때 당신은 난데없는 “시골인심이 후하고구나”하는 生覺이 들 것이다.

강남갔던 제비가 다시 찾아왔을 때, 농부의 밭가는 소모는 소리, 어렸을 적에 산일이 있던 조그만 마을에 많은 歲月이 經過한 後 다시 찾아가니 竹馬故友들이 난데없이 환영하여 줄때, 옛 초가 삼간 섰던 자리에는 늙고 아담한 궁궐이 서있고 당신이 떠날때 심 그어 놓았던 한포기 나무는 몇십년이 자라 長松이 되었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까치의 반갑다는 짖는 인사는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해준다.

어찌 또 이뿐이랴 !

날아가는 기러기의 글자, 아가의 걸음
마, 분홍치마 노랑저고리가 널 바람에 휘
날릴 때, 새벽 녁의 목탁소리, 바이얼린
의 E 鉦, 가을 밭에 보이는 조이삭, 山
에서 달아나는 노루를 보았을 때, 봄철
의 아지랑이, 오뉴월의 신록, 가을의 단
풍, 겨울의 白雲, 休家의 첫날, 滿月의
강강수월래, 入院환자의 퇴원하는 날이
모든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소 태 맛

윤 영 자
(교육 도서관)

글을 별로 자주쓰는 편은 아니지만,
어쩌다 쓰고보면 여행이야기를 쓰기 마련이다. 그만큼 여행이라는 對해 關心이
큰가보다. 그러나 “關心이 크다”라는
제법 “거창 ?” 한 表現에 비해 나의 여행
목적은 너무도 유치하기만 하다.

그야 여행하는 사람들간엔 제각기 目的이 있을 것이다. 가령 例를들면 아름
다운 경치를 보기 爲해서라든가, 아니면
견문을 넓히기 爲해서라든가.

그러나 내 경우엔 時間을 소비하기 爲
한것 以外엔 달리 目的이 없다. 혼히 “돈
으로 時間을 산다”라는 말들을 한다. 그
러나 난 時間을 소비하기 爲해 돈을 쓰는
어쩌면 기현상 일지도 모를 일을 곧
잘 하는 것이다.

어떤때는 여행지에가서 이를 사흘 밖
에도 안 나오고 방에만 틀어 박혀 있을

때도 있다. 또 어떤때는 目的地도 없이
무턱대고 떠날때도 있다.

한번은 여행중 기차안에서 한 어설픈
知人을 만났다. 반갑지도 않은 형식적인
인사가 끝나자 그는 나에게 어디가느냐
고 묻는 것이었다. 극히 자연스러운 물
음이다. 그러나 난 당황하지 않을 수 없
었다. 그때까지 난 내가 目的地없는 여
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 말문이 꽉 막히
고 말았다. 그 많은 고장이름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네, ……” 떠듬거리고 있을때 마
침 기차가 철교를 건느느라 요란한 소리
를 내자 그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
다.

맙소사 !

그제사 난 나에게로 되돌아 올 수 있
었던 것이다.

目的地없는 여행. 어쩌면 열른 理解가
안가는 일일지 모르나, 그러나 구태어
목的地가 있어야 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그럴것이 대부분의 時間들을 직업이라
는 現實앞에 어이없이 침식당한채, 매사
형식에 매여 질질끌려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자기자신마저 의식하지 못한채, 지
나게 되는 수가 있기 마련인 것이다. 그
런데 그처럼 살풍경한 삶속에서 모처럼
의 여행에 마저 目的地의 계획이니하여
형식의 명예를 죄울 必要가 있을까 말이
다. 난 마음이 내키면 타고싶은 기차를
타고 마음껏 달려가는 것이다. 그리고는
낯선 고장에 내려 쓰디쓴 차 한잔을 마신
후 피로에 지쳐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난 떠날때의 그 어설픈 환희 보

다는 돌아올때의 그 절망감을 더 절실하게 실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식에서 벗어나 가고싶은 곳에만 가면 모든 것이 환희로서 나를 맞아줄것 같은 떠날때의 희망과는 달리, 가고싶던 어떤 고장에 내려고 차디찬 미소들을 대할때 비로소 난 나를 의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예외없이 모든 것에

실망을 하고 말기 때문이다.

그 언젠가는 나도 나의 그 目的地 없는 삶이라는 여행에서 돌아가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난 그때 내가 감수해야 할 그 엄청난 짜증과 절망감을 상상하며 오늘도 어느 역앞 낯선 찻집에 앉아 그 소태맛 보다 더 쓴 차를 마시며 기차를 기다리는 것이다.